

소(笑)·심(心)한 일상 특특

극한 직업, 수험생 가족

취재·사진 윤소영 리포터 yoonsy@naeil.com

2023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 전형 경쟁률

대학	전형	2023학년도	
		모집	경쟁률
가톨릭대	논술전형	179	52.72
건국대(서울)	KU논술우수자	434	52.87
경기대	논술우수자	167	14.98
경희대(서울)	논술우수자	253	92.48
광운대	논술우수자	187	33.96
단국대(죽전)	논술우수자	315	23.78
동국대(서울)	논술전형	307	55.6
서강대	논술(일반)	175	94.58
서울과학기술대	논술전형	190	37.7
서울시립대	논술전형	77	33.96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120	27.12
세명대	논술우수자	310	52.02
성균관대	논술우수자	360	101.92

이런 경쟁률이라니...
시작부터 힘이 풀리지만,
끝까지 달려보렵니다~

2023학년도 서울·수도권 대학 종합 전형 경쟁률

대학	전형	2023학년도	
		모집	경쟁률
가톨릭대	경제능력우수자	438	13.74
가톨릭대	학교장추천	51	19.82
건국대(서울)	KU자기추천	795	17.93
경희대(서울)	네오리얼스	583	18.43
고려대(서울)	일반전형-확대우수자	915	17.09
고려대(서울)	일반전형-개발역량	495	15.18
광운대	광운광명인재	491	8.91
국민대	국민프론티어	646	10.68
국민대	학교생활우수자	383	6.7
단국대(죽전)	DKU인재	343	13.63
단국대(죽전)	SW인재	50	7.88
동국대(서울)	DoDream	484	18.81
상명대(서울)	상명인재	281	12.37
서강대	학생부종합(일반)	574	14.55
서울과학기술대	학교생활우수자	343	18.15
서울과학기술대	일반인재	60	11.22
서울대	지역균형	562	3.93
서울대	일반전형	1,408	8.12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I	371	17.94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 II	80	16.61
서울여대	바람인재서울	256	14.84
서울여대	바람인재연합	169	27.94
세종대	왕의인재(면접형)	353	13.16
세종대	왕의인재(서류형)	107	14.36
성균관대	학생부종합(개발모집)	417	18.11
성균관대	학생부종합(학과모집)	630	12.54
성신여대	학교생활우수자	215	7.19
성신여대	자기주도인재	436	9.88
숙명여대	숙명인재 I	161	11.66
숙명여대	숙명인재 II	270	18.5

수능 6교시 '원서' 영역

“회원 가입은 아이 이름으로만 가능한가요?”¹

“사진을 수능 사진으로 써도 돼요? 교복 차림이라...”²

“한 학교에 세 가지 전형 지원하면 여섯 개 중 하나인가요? 셋인가요?”³

“사이트에 성적을 잘못 입력하면 불합격될 수 있나요?”⁴

“접수 첫날 제가 테스트 점 접수했는데 아이가 그 학과가 마음에 안 든다며 울고불고... 대학에 얘기하면 바꿔줄까요?”⁵

“전화번호는 누구 걸로 쓰세요? 전화 잘 안 받는 아들 말고 엄마 번호로 해도 되나요? 전 충원 전화 안 놓칠 자신 있어요.”⁶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질문들! 수시 원서 접수 첫날의 풍경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도무지 어디에도 집중이 어려워, 동병상련을 느끼고 소식이라도 들으려 단톡방, 밴드, 커뮤니티 등에 자꾸 들락거리게 돼요.

접수 기간 중 대학의 경쟁률 공지 시간마다 마치 복권 당첨 번호라도 확인하듯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찾아보며 안도와 탄식을 반복하고요. 아이는 정시파라며 일찌감치 내려놓은 내신인데, 수시 원서 6장 중 논술 섞어서라도 몇 개는 써보자고 시작한 것이 고구마 한 박스쯤 삶아 먹은 답답함의 연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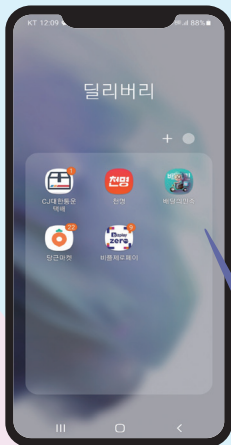
결국 우리 애가 원서 넣은 곳은 싹 다 높네요. 이 무슨 '머피의 법칙'인지... π.π '적성(적당한 성적)' 찾기가 이리 힘든 건가요? 이제 겨우 수시 원서 접수일 뿐인데 앞으로 1차 발표, 최종 발표, 충원 합격까지... 또 정시는 어찌 치러낼지 아득하네요. 6교시 '원서' 영역~ 진짜 수능보다 더 어렵습니다!

[질문 답안 예시]

- 1 당연히 학생 이름으로 가입해야죠.
- 2 네~ 현역은 교복 착용 관습이요. N수생은 보통 다시 짝고요.
- 3 세 장이요!
- 4 원서 접수는 성적 입력 안 해요.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합격 예측 서비스랑 혼동하신 듯해요.
- 5 원서 접수 절차가 끝나 수험번호가 나오면 대학, 전형, 학과는 절대 변경 안 됩니다.
- 6 엄마 번호 쓰셔도 되는데 합격하면 1번 번호가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단톡방에 초대되실 거예요. ㅎㅎ

본문 속 질문이
궁금하시면 답안
예시 확인하세요~ ^^

입시와 진학 상담의 기회는 많아요.
고등학교, 교육청, 학원 등... 2년 차의
교훈은 '아는 만큼 얻는다'는 것!
구체적이고 핵심 있는 질문만이
진짜 도움이 되더라는~



점집 중개 앱의 분류는
어떨까요? 배민, CJ통운,
당근 등과 함께 '달리버리'에
넣어봤어요. ㅎㅎ

미워도 다시 한번

“앗, 작년 아이디어가 싹~ 삭제됐네요. 다시 가입하래요.”

“어머~ 완전히 리셋이구나. 너 공인인증서는 있니?”

“아니요!”

“올해부터 졸업생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학생부 열람과 수상
내역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더데, 빨리 그것부터 챙겨보자.”

저희 집에는 요즘 흔한 고등학교 4학년이 있어요. 주변에도 다
양하게 많더라고요. 재수생, 반수생, 군대에서 도전하는 군수
생까지. 겪어보니 일부 장밋빛 결과만 믿고 도전하기엔 쉽지
않고, 수험생은 물론 온 가족이 겪는 고충도 많아요.

얼마 전 아이 친구 엄마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여름방학이 지
나면서 부쩍 지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다들
걱정도 많고 심란했네요. 곁에서 지켜보기도 안타까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이런저런 얘기로 꽃을 피웠지요.

“힘들게 노력하는데 이번엔 꼭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야지. 컨
설팅도 일찌감치 예약했어.”

“작년엔 세 곳 찾아갔는데... 진짜 도움이 됐었나 싶기도 해.”

“믿을 수 있는 심리 상담, 점술가 잠실 김 선생님은 어때? ㅎㅎ”
무슨 우스갯소리가 했더니 진짜 그런 앱이 있다며 휴대폰을
엽니다. 배민의 맛집 리스트처럼 지역의 점집 리스트가 있고
이용자들의 후기와 별점이 넘칩니다. 찰떡같이 해결책을 알려
준다는 후기에 하마터면 ‘상담 신청’ 누를 뻔~!! 무슨 대형 학
원 일타 선생님 수강 후기인 줄 알았네요.

“얘들아, 이토록 간절한 엄마 마음, 알고 있지? 올해는 꼭 원하
는 대학, 가즈아~~” @



매일 비슷한 일상 속 특별한 날이 있죠. 학생,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담은 코너입니
다. 재밌거나 의미 있어 공유하고 싶은 사연 혹은 마음 터놓고 나누고 싶은 고민까지 이메일
(lena@naeil.com)로 제보해주세요. 편집자